

'한민족 돕기'에 전 불자 동참을...

월주스님 한마음선원에서 '깨달음 사회화' 범문

"불교는 자각각타 각행원만(自覺覺他 各行圓滿)의 종교입니다" 1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열린 '한민족 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총무원장 월주스님 초청법회에서 월주스님은 경내를 곱게 꾸민 불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와 이웃,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바탕자리를 깨달아 깨끗한 불국세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마음선원 불자들이 그 마음을 갖고 닦는 한마음의 도를 이미 오래전부터 체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망상과 집착을 버리고 지혜와 자비를 원만구족한 마음의 바탕자리, 진여불성(眞如佛性)을 찾아 깨달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불자의 삶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타미에 올라 앉아 있지만 웃도 잠입고, 밥도 먹음 만큼 먹고 삽니다. 하지만 불

한에는 식량이 없어서 천만명의 형제자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서로돕기 운동은 북한동포들을 돕고, 또 사회경제적 불황으로 늘어난 실업자, 명퇴자와 연변동포들에 이르기까지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두루 쓰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곧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의 한 부분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월주스님의 법문에 불자들은 함찬 박수로 답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1천3백56만8천원이 모금돼, 3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에 전달됐다.

월주스님은 한민족 서로돕기운동 확산을 위해 한마음선원, 조계사, 도선사, 봉은사 등에서 법문을 했으며 앞으로 구룡사, 화계사, 능인선원 등도 방문 설법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1일 한마음선원에서 열린 '한민족 돕기 성금모금법회'에서 월주스님은 경내를 곱게 꾸민 불자들에게 민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고 설했다.

"그늘진 이웃에 보살행 펴터"

광주불교사암련 새회장 현지스님

"IMF한국과 경제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부대중의 화합을 통한 불교위상강화와 복지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2일 광주불교사암련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회장에 선출된 원효사주지 현지스님은 사부대중의 화합을 강조했다.

스님은 "광주공원에서 매달 오갈데 없는 무의탁·독거노인들에게 점심용 공양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불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체험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사암련연합회는 향후 1주일에 한번이상 그늘진 곳을 찾는 보살행과 사



할환경살리기를 최우선 사업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스님은 사암련연합회 산하에 환경운동단체를 설립, 정기적으로 환경운동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내실 다져 위상 재정립"

교수불자련 10대회장 조희영 교수

"창립 10주년을 맞는 교불련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교수불자연합 '98 정기총회에서 제10대회장에 선출된 조희영 교수(동국대 경영학과)는 "창립 1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피력하며 "지난 10년

을 거울삼아 지식인들의 모임으로써 불교계에 일조할 수 있는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9년 교불련 창립멤버로 시작, 그동안 국제부장과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교불련의 10년을 함께해 왔다.

"앞으로는 교자이라는 특성을 살려 후학들에게 불교 교학을 알리고 교화에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주년 사업과 관련 "외형적인 큰 행사보다는 내실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교차로

LA 관음사 24돌 법회 참석

성타 조계종 포교원장 스님은 8일 미국 L.A. 관음사 창립 24주년 기념 법회 참석과 동산불교대학 L.A. 본교에서 특강을 하기 위해 7일 출국했다.

요시채 건립 기공식

법현 동지 청소년의집 주지는 2월 22일 자연사 경내에서 후원회원 50여 명과 함께 무의탁 청소년들이 기거할 요시채(60평) 건립기공식을 가졌다.

비무장지대서 방생법회

해철 대방동 정현사 주지는 신도 1백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철원 비

무장지대에서 공·조·수·수·비 등 새막을 주는 방생법회를 가졌다.

계정사 불교회관 개원

월봉 계정사 주지는 2월 22일 지상 2층 규모의 불교회관을 건립, 삼존불 집안 및 회관 개원식을 봉행했다.

혜능선원 강동포교당 개원

일관 혜능불교대학장 스님은 12일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혜능선원 강동포교당 개원식을 봉행한다.

관음사 어린이집 개원

도기 경북 영주 관음사 주지는 5일 '관음사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이번 개원식에는 김진영 영주시장, 경북도의회 전동호의장 등이 참석했다.

도봉서 경승실장에 추대

법장 무진법장사 주지는 지난달 3일 도봉경찰서 경승실장으로 추대됐다. 스님은 57사단 예비군 법사단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 답사객 통도시 초청

심산 통도사 부사포교원장 스님은 22일 외국인 통도사 답사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답사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전통사찰 건축양식을 배울 예정이다.

시립대총장협의회 회장에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2월 27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제5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서암 장학회 장학금 전달

순현수 전국불교사암련연합회장은 1일 안동 서암당에서 제5회 서암장학회 장학금 전달

본사 신행수기 수상자 모임 결성

현대불교신문 공모 신행수기 수상자들의 모임인 '신수회'가 2월 28일 녹수청산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2회 우수상 수상자인 이영자씨(삼양 초등학교 교사)가 초대 회장에 선출됐다. 부회장은 이매림씨(3회 대상) 총무에는 김재화씨(3회 특별상)가 선임됐다.

또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11시 녹수청산에 정기모임을 갖기로 하고, 회원간 친목도



모를 위한 회원가정 방문, 성지순례 등을 전개기로 했다.

'직지심체요절' 강의

각 성 스님(승해사 대학원 교수)은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 부산 한국불교명상통신강원 야간 경전반에서 '직지심체요절'을 강의한다.

명예 청주시민증 받아

박병선 박사(재불교포)는 직지심체요절을 처음 발견, 현존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받게 한 공로로 청주시로부터 4월 20일 명예시민증을 받는다.

식을 가졌다

이날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고교생 35명에게 총 3천 5백만원이 지급됐다.

국악 예술고 이사장에

박범훈 중앙대학교수는 6일 오전 11시 국악예술고등학교 제 8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밝은길 아바타센터'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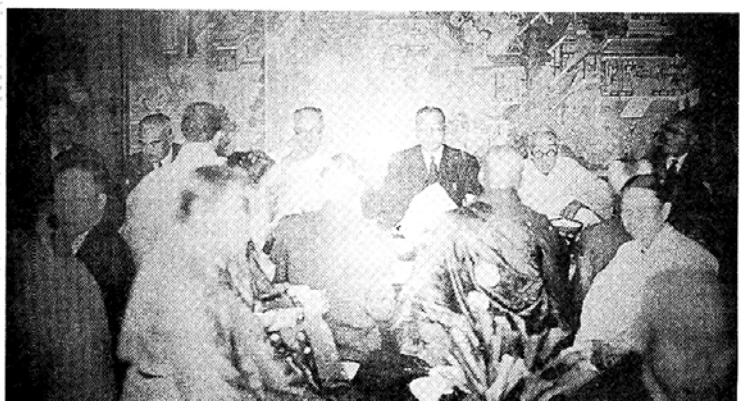
김희균 월간(대중불교) 전 편집장이 최근 서울 경창동에 '밝은길 아바타센터'를 개원했다. '밤으로 화신(化身)이라는 뜻을 지닌 아바타(avatar)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마음을 공부하는 프로그램.

(02)396-2736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교정회 1,000,000원 △정규찬 50,000원 △이귀숙 5,000원 △노태영 30,000원 △최인순 100,000원 △노유재 10,000원 △양순희 30,000원 △서기주 50,000원 외 67명 △한주한기쁨기 1,438,000원 △밥 한 공기 6,000원 ●나진 선봉시 북녘 어린이 결연 △재일본 한국인 불교도 연합회 100,000원 △청년 정토회 500,000원 △정토 어린이 화랑단 261,180원 △박용훈 1,000,000원 △임무인 120,000원 △군수영 100,000원 △오현수 100,000원 △이희선 50,000원 △정민수 5,000원 외 65명 (3월 4일 현재 총 947,703,992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돕기운동)



김구등 임정요인 대각사 방문 사진 '첫 공개'

3·1절 79주년과 3월의 독립운동가인 '백용성스님의 달'을 맞아 대각사가 독립운동의 본거지였음을 입증해주는 희귀한 사진이 3일 공개, 찬안 독립기념관 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다.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지 후인 1945년 12월 12일 서울 봉익동 대각사를 방문, 환영받는 모습을 담고 있는 이 사진은 3·1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

윤기석 기자

불교미술품의 무분별한 수입 철회를 촉구하며!

"무분별한 불교미술품 수입으로 전통문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족문화 보존을 위해 불교미술품 수입은 중단돼야 합니다."

불교문화는 1천 6백년 민족사와 더불어 고락을 같이 하면서 민족문화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의 70~80%가 불교문화재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으며, 불교적 사상과 윤리의식은 이 땅의 정치·사회·문화·예술·도덕·풍습등 전 분야에 걸쳐 깊은 영향을 끼치면서 특정 종교적 위치를 떠나 민족문화, 민족종교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전통문화는 그 뿌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시작된 베트남 중국등지에서 역수입되기 시작한 몇몇 몰지각한 인사들의 무분별한 불교미술품의 수입 때문입니다. 년 몇십억 대 가까운 물량으로 알려진 불교미술품의 수입은 끊어진 명맥을 겨우 이어가고 있는 전통문화를 몰살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값싼 저임금과 재료비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으며 그것이 마치 국내에서 제작된 것처럼 속여 팔기도 하고 있습니다.

IMF시대를 맞아 과도한 수입과 지출로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와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불교미술품의 무분별한 수입은 지금 즉시 근절돼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 회원들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말살하는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심히 창당한 심정을 금치 못하며 불교미술품 수입 철회와 중단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연구활동도 펼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 회원들은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재관리국에서 엄정한 시험을 거쳐 문화재 조각 기능자로 등록된 장인들의 유일한 단체로 문화재 보수를 통해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재현하며 전통조각을 전승 계승하여 전통 불교조각 및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정진하겠습니다.

불기 2542년 3월 일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

지금 서점 있습니다.

불교미술작가들이 직접 만든 화제의 책!

알기쉬운 불교미술

조계종 '98 신도 교육의 해 권장도서

- ◆ 불교미술작가들이 직접 만든 화제의 책
- ◆ 불교미술 전반에 걸쳐 도판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

일반인을 위한 불교미술해설서

- ◆ 불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면서도 어려웠던 불교미술.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부처님과 탱화, 그리고 모든 성스러운 불교미술품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 이 책 한 권으로 사찰의 모든 불교미술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국불교미술인회는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미술가 모임으로 전국 각지의 사찰에 많은 작품들을 조성, 봉안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작품전과 주제전, 학술발표 등을 개최 전통불교미술발전에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사원과 불상, 불화의 의미 · 법당과 부처님, 탑 · 석조물, 문루와 그 의미 · 법구, 불교의 상징물, 단청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43 ☎ (02)738-1117

보급처 : 불교방송사립국 ☎ (02)705-5302